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2013년도 건설공사 시공능력 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기계설비공사업자 및 가스시설시공업자(제1종)에 대한 2013년도 건설공사 시공능력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공시대상 :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등록업체
2. 공시내용 :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2013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건설업종별·전문분야별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자수
3. 열람 및 등록수첩 기재 장소 : 대한설비건설협회 각 시·도회 사무처 

이름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회	135-95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45-1 설비건설회관 6층	02-6240-1200
부산광역시회	614-050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351-2 부산설비건설회관 7층	051-866-0070
대구광역시회	706-816	대구 수성구 범어3동 1-4 건설회관 6층	053-742-8935
인천광역시회	402-010	인천 남구 송의동 343-9 로터리빌딩 601호	032-888-0277
광주·전남도회	500-828	광주 북구 신안동 501-15 주택회관 3층	062-527-3787
대전·세종·충남도회	302-828	대전 서구 둔산동 929 사학연금대전둔산회관 1801호	042-932-3900
울산·경남도회	642-845 680-82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2 교직원공제회관 7층 701호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1211-4번지 새마을회관 4층	055-288-4818 052-260-2440
경기도회	440-30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0-17 수원상공회의소 201호	031-252-4178
강원도회	200-080	강원 춘천시 경춘로 2357 새마을금고중앙회빌딩 4층	033-251-5044
충북도회	361-84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571 오성빌딩 2층	043-265-2274
전북도회	561-85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가 1573-1 사학연금전주회관 7층	063-241-0070
경북도회	791-845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09 교보생명빌딩 6층	054-281-6640
제주도회	690-828	제주 제주시 이도1동 1689-1 교보빌딩 4층 407호	064-755-9828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4조제3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도회에 비치하고 있는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는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업자에게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하고 있으니, 해당 시·도회에서 기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31일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정 해 돈

TEL : (02)6240-1100 FAX : (02)6240-1114

## “창조경제 생태계로 제2경제도약” 다짐



중소기업 창조경제위원회 출범식에서 정해돈 회장은 위원으로 위촉됐다  
(사진 1열 다섯 번째 : 최문기 미래부 장관, 1열 네 번째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2열 우측 첫 번째 : 정해돈 회장)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창조경제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과 국가미래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학계·연구계·전문가·기업인 49명이 창조경제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출범식에서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창조경제 실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중소기업이라는 생각을 해왔다”면서 “정부와 함께 창조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문기 장관은 축사를 통해 “창조경제혁신위

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면서 “민관 협력을 넘어 민간이 주도적으로 창조경제를 이끈다면 제2의 경제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정해돈 회장은 “위원회가 다양한 전문분과 구성원을 갖춘 만큼 긴밀한 협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건설업의 경제민주화 및 상생협력 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창조경제를 위한 중소기업계의 역할 강화방안이 발표됐고, 이어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위원들 간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 배관, 용접, 공조냉동기계, 기계조립 분야 기술능력 발휘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7월 8일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제31회 인정기능사 실기검정을 실시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해돈)는 지난 7월 8일 한국폴리텍I대학(정수캠퍼스 제2공학관)에서 제31회 인정기능사 실기검정을 실시했다.

이번 실기검정에는 지난 5월 서류심사를 통과한 36명(배관 23명, 용접 8명, 공조냉동기계 3명, 기계조립 2명)이 실기검정에 응시, 그동안 갖고 닦았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실기검정을 실시한 이상일 인정기능사 심사위원장(서울특별시회 회장)과 황광연 심사위

원(대전·세종·충남도회 회장)은 열심히 시험에 임하고 있는 응시생들을 격려했다.

이상일 심사위원장은 응시생들에게 “인정기능사 경력증은 건설현장에 꼭 필요한 자격증이므로, 평소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합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인정기능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최종 합격자에게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업계 현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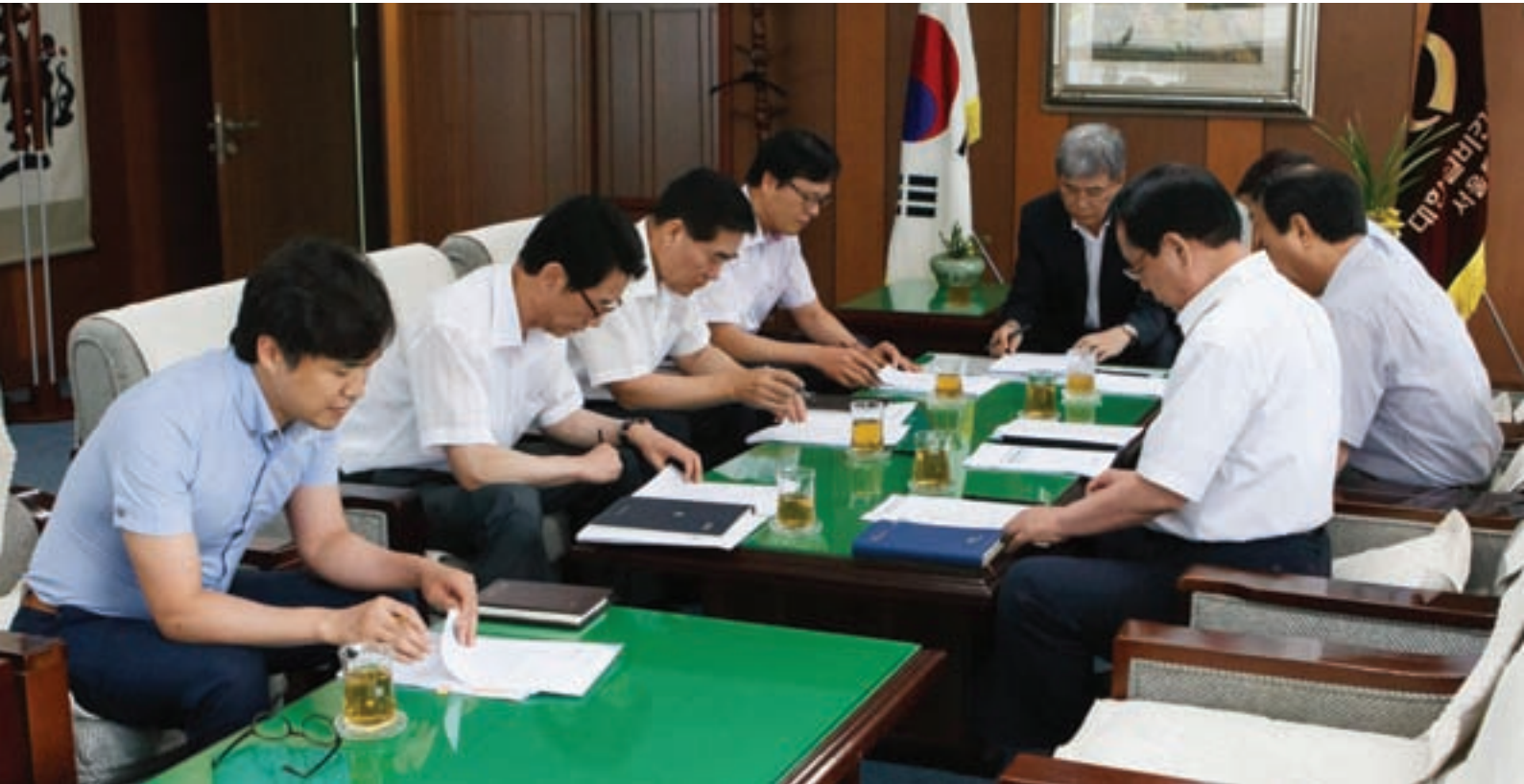
가스설비공사협회는 지난 7월 5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55차 회의를 개최했다

가스설비공사협회(위원장 조종택)는 지난 7월 5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55차 회의를 개최했다.

가스설비공사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 2013년 적용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 △ 2012년 건설공사 실적현황 △ 2013년 한국가스공사 가스설비공사 분리발주 현황 △ 2013년 LH공사 가스설비공사 분리발주 현황 △ 제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보고하고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종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존 시장의 축소로 업계의 활동 영역에 제한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가스설비공사협회는 업계 공정경쟁 촉진 및 권익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제8대 가스설비공사협회 임기까지 업계 교류를 원활히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 분리발주 법제화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업무추진 논의




대한설비건설협회 TF 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해돈)는 지난 7월 9일 서울시회 회장실에서 제6차 설비건설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TF 위원회(위원장 이상일) 회의를 개최했다.

TF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분리발주 법제화 관련 전국 사무처장 회의를 비롯해 국회,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및 협회 출입기자 등에 대한 분리발주 법제화 홍보와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에 기계설비 분리발주 자료 제출 등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TF위원회는 향후 분리발주 관련 국회 방문 및 주계약자 관련 발주기관 방문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산하 구청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건의서' 제출 등을 논의했다.

이상일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분리발주 법제화와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협회 업무추진이 매우 적극적이다”면서 “특히 분리발주 법제화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산하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서울시 분리발주 조례 개정 등 추진사업 논의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7월 25일 제26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회(회장 이상일)는 지난 7월 25일 양재동 식영정에서 제26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요율 산정 및 서울시 분리발주 조례 개정 등을 비롯한 협회 추진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이상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름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휴가철 무더위에 지치기 쉬우므로 건강에 유념하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협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분리발주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회에서는 8월부터 서울시 각 구청을 방문해 이번에 바뀐 서울시 조례 등 분리발주 관련 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면서 “운영위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업무 추진실적과 8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8월 업무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 ■ 8월 업무추진 계획

-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활성화 추진
- 2013년도 하반기 회원사 임·직원 및 임·직원 자녀 장학생 신청 접수
- 2013년도 하반기 설비관련대학 장학생 추천 접수
- 제44회 총회(임시) 개최 준비
- 2013년도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
- 2013년도 시공능력 회원사 순위표 제작·배부

2013년도 하반기

# 서울관내 회원사 임직원 및 임직원 자녀 장학생 선발 공고

서울특별시회(회장 이상일)는 설비건설업계 발전을 위하여 함께 해온 서울시 관내 설비건설업체 임직원의 자부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회원사 임직원 및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2013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청대상 및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회 정회원으로 1회원 1인에 한하여 추천 및 신청
- 설비건설업계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상용근로자의 자녀로서, 국내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건축설비관련학과 재학생 가점)
  - ※ 설비건설업체라 함은 설비건설업체(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등록한 업체)와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의 기계직 및 가스직을 말하며, 해당 업체별 근무기간을 합산 함
- 설비건설업체에서 3년 이상 상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국내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 건축설비관련학과 재학 중인 자
- 10년 이상 근속하다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고 퇴직한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
- 부모 발생 등으로 폐업한 회원업체의 대학생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 ※ 신청제외 : 회원사 대표이사 본인 및 대표이사 자녀, 100만원 초과외 타 장학금 수혜자 및 휴학생 단, 부모 발생 등으로 폐업한 회원업체의 대학생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자는 대표이사 자녀 가능함

## ▣ 선발인원 : 10명

## ▣ 장학금액 : 1인당 200만원

## ▣ 신청방법 및 접수

신청방법	- 서울시 관내 회원사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신청 - 신청은 서울특별시회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
신청서류	-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시회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 - 장학생신청(추천)서 및 구비서류 일체
접수기간	- 2013. 8. 5(월) ~ 8. 30(금)(26일간)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장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45-1 설비건설회관 6층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 ▣ 선발 및 발표

- 선 발 : 회원사 대표자로 구성된 우리사회 운영위원회에서 장학금지급내규에 의거 심의하여 선발
  - ※ 단, 기존 장학금 수혜업체가 최근 1년(2회)이내에 연속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차순위로 결정
- 발 표 : 2013. 9월말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통지 함

## ▣ 문의 :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기획관리실(02-6240-1207)

## 행복한 광주 교육환경 조성 기여




광주 · 전남도회는 지난 7월 22일 광주시교육청에 결식학생 급식비 후원성금을 기탁했다  
(사진 왼쪽 세번째 이연풍 회장, 네번째 장휘국 교육감)

광주 · 전남도회(회장 이연풍)는 지난 7월 22일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을 방문해 결식학생 급식비를 후원했다.

이연풍 회장은 장휘국 교육감에게 성금을 기탁하며 “광주 학생들이 급식비 부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씩씩하게 생활함으로써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연풍 회장은 “분리발주를 통한 광주교육

청의 지역 설비건설업체 육성 노력에 감사하다”면서 “교육시설물의 건설 시공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성금을 전달받은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결식학생 제로화 사업에 후원해 주신 설비건설업체에 감사하다”면서 “후원금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조속 추진 건의




광주·전남도회는 지난 7월 12일 장병완·임내현 의원에게 분리발주 법제화 조속 추진을 건의했다.

광주·전남도회(회장 이연풍)는 지난 7월 12일 광주지역 국회의원인 장병완 의원과 임내현 의원을 면담하고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한 설비업계 의견을 설명하고 분리발주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성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연풍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산업은 원·하도급 구조의 수직적·일방적 생산체제로 인해 각종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중소전문건설사의 경영부실화가 초래되는 등 많은 폐해가 발생해 왔다”면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건설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장호직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이상현 회장 등이 함께 참석해 “공공공사 분리발주 체제가 확립되면 정부가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 직접 일을 맡길 수 있으므로,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갑을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면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 분리발주 법제화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 급식비 후원 및 기계설비 분리발주 건의




울산·경남도회(회장 김재홍)는 진주교육청(사진 상단 좌측), 창원교육청(사진 상단 우측), 울산시교육청(사진 하단)에 급식비를 후원하고 기계설비 분리발주를 건의했다.

울산·경남도회(회장 김재홍)는 지난 7월 8일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박태우), 7월 16일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순복), 7월 22일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복만)을 방문하여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후원금을 기탁하고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와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간담회를 가졌다.

김재홍 회장은 교육청에 급식비를 기탁하며 “방학기간 동안 급식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대한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회원사가 뜻을 모았으니 저소

득층 자녀들의 급식비에 써달라”고 밝혔다.

김재홍 회장은 또한 “건설경기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교육청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여 주신 데 매우 감사하다”면서 “교육시설의 고품질 시공을 위해 앞으로도 기계설비공사의 지속적인 분리발주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후원금을 전달받은 지역교육청은 “건설경기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적극 후원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적극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별 회원간 상호 교류 및 화합 지원



울산협의회(7.4)



경남 서부협의회(6.7)



경남 중부협의회(6.4)



양산협의회 및 기타지역(5.8)

울산·경남도회(회장 김재홍)는 지난 5월 8일부터 7월 4일까지 회원사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분리발주 법제화를 비롯해 협회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회원사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순회 간담회에서 김재홍 회장은 “건설경기 악화로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회원사 여러분의 상호 정보교류와 단결로 지금의 위기를 능동적으로 극복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울산·경남도회는 18개 시·군에 분포된 460여 개 회원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울산협의회, 양산협의회, 경남중부협의회, 경남서부협의회 등 지역별 회원 친목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별 회원사 간담회 개최를 통해 총 2천3백만원의 지역활성화 지원금을 전달하고, 울산·경남지역 업역확대 추진 및 회원 화합을 지원했다.

협의회		간담회 일자	지역활성화 지원금
울산협의회	울산광역시 회원 친목협의회	7.4(목)	10,000,000원
경남 서부협의회	진주 등 경남 서부지역 회원 친목협의회	6.7(금)	5,000,000원
경남 중부협의회	창원 등 경남 중부지역 회원 친목협의회	6.4(화)	6,000,000원
양산협의회 및 기타지역	그 외 기타 지역	5.8(수)	2,000,000원



천일기업 김휘수 대표이사(사진 우측)에게 우승 트로피를 수여하는  
이현욱 울산·경남도회 부회장(한얼기공 대표이사, 사진 좌측)

한편 울산·경남도회는 지난 4월 25일 노벨 C.C에서 회원사 친목도모와 교류증진을 위한 친선 체련대회를 개최하고 김휘수 (유)천일기업 대표이사, 이용재 해원산업(주) 대표이사,

김진명 (주)명보설비 대표이사, 차정현 (주)성산 대표이사, 김일곤 우경테크(주) 대표이사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

구분	수 상 자	지 역
우 승	김휘수 (유)천일기업 대표이사	진 주
메달리스트	이용재 해원산업(주) 대표이사	울 산
준우승	김진명 (주)명보설비 대표이사	창 원
통기스트	차정현 (주)성산 대표이사	울 산
니얼리스트	김일곤 우경테크(주) 대표이사	창 원

## 심신단련과 상호결속 다져




경기도회는 지난 7월 11일 모락산에서 임원 30여명과 함께 체련대회를 개최했다

경기도회(회장 김석환)는 지난 7월 11일 모락산 안골에서 경기도회 8대 집행부 및 본회 대의원, 자문위원 등 30여명의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3년 하계 임원 체련대회'를 개최하고 족구를 통한 상호 친목과 단합을 도모했다.

김석환 경기도회 회장은 "경기도회는 정부의 대선공약 사항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오늘 참여하신 임원 여러분이 구심점이 되어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환 회장은 또한 "경기도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간담회를 갖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그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 불공정거래관행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앞으로 불공정하도급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경기도회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석환 회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족구대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심신이 재충전되고 상호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체련행사에 참여한 모든 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로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




전북도회는 지난 7월 16일 전북교육감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건의했다

전북도회(이영길)는 지난 7월 16일 전라북도교육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라북도 교육청 김승환 교육감과 함께 건설분야 청렴문화 정착과 지역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라북도 교육청 김승환교육감, 고광휘 행정국장, 전정재 재무과장, 손홍신 시설과장, 김성권·조흥기·강영주 교육시설 담당사무관 등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이영길 회장 등 전북지역 건설단체장들이 참석해 “2013년 교육시설 공사분야 청렴도 향상 개선” 등을 논의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아이들에게 부끄럼 없이, 먼지 없이 살겠다는 마음으로 교육시설 공사분야 청렴도를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뒤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 등이 이루어져, 기업들이 정상이윤 확보를 통한 채산성 향상으로 재투자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역 설비건설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한 이영길 회장은 “전국17개 시·도에서는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의 교육시설 신축공사 외에 기타 교육시설 신축공사에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전북지역 교육시설 공사에 대한 기계설비 분리발주를 비롯해 공사의 품셈을 현실화하여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 분리발주 지적 감사업무 시정 건의



이영길 회장(사진 좌)은 최진호 의장(사진 우)을 면담하고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활성화를 건의했다

전북도회(회장 이영길)는 지난 7월 18일 최진호 전라북도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라북도 공사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영길 회장은 “김완주 전라북도지사님께서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하여 분리발주, 공동도급, 지역업체 생산 자재 사용확대와 공동도급 대상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40%이상 입찰공고에 명기 등을 지시했다”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비롯해 김완주 도지사님의 지시 등을 따르고 있는데, 전라북도 감사과에서 종합감사 시 분리발주를 한 시·군 공무원들

에게 질책 또는 징계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민주화를 저해하는 감사업무를 개선하고 전라북도 교육시설 및 공공기관 시설물의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더욱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진호 의장은 “지역경제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추세에서, 전라북도 감사과는 이런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라북도 감사관에게 시정조치를 지시하겠으며, 전라북도 예산과 및 전라북도 교육청 재무과에 지역건설경제활성화 정책에 따라 공공공사 분리발주 집행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